

기우담의 하위 갈래별 관념과 의미 해석

노영근*

<차례>

1. 서론
2. 임금과 가뭄
3. 祈雨 原理
4. 龍神觀
5. 결론

<국문초록>

강우량의 극단적인 다과가 빛은 홍수와 가뭄은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재해 중에서도 그 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일반 민중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재해를 극복하고 현실의 삶을 영위할 힘을 얻기 위한 민중들의 요구가 서사탄생의 동인임은 불문가지한 일이라 하겠다. 홍수와 가뭄을 서사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홍수는 신화의 차원에서, 가뭄은 민담의 차원에서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홍수는 신 혹은 신적인 존재만이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 신들의 역사로 인식한 반면에 가뭄은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으로 여긴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살핀 기우담은 이러한 인식의 연장에서 세 가지 방향으로 갈래지을 수 있었다. 가뭄의 원인, 대책과 龍神觀이 그것이다. 민담에서 가뭄의 원인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원인을 임금의 부덕에 귀속시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철종이었다. 민중들은 자신들과 같은 처지였던 철종에게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위정자의 모습을 투영시켜 이야기를 형성한 것이다.

또한 민중들이 가뭄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하나는 신성한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상의 훼손된 신성함을 복원시키는

* 국민대학교 전임강사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성한 존재 스스로가 자신의 신성함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제물을 바치거나, 오염된 성역을 정화함으로써 이뤄지고, 후자는 신성 공간을 훼손함으로써 이뤄진다. 방향은 다르나 양자는 모두 신성한 존재에게 인간의 현실적 고난을 해결해 주길 청원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은 신성한 자연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라 하겠다.

이와 반대되는 인식의 방향이 용신에 대한 관념이다. 용신에 대한 관념은 용이 처녀제물을 받고 승천하는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인간에게 제압당하는 용의 형상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용은 인간에 의해 제압당하거나 속임수에 넘어가는 존재가 되고 있다. 나아가 용자가 자신의 운명을 인간에게 의탁하는 형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자연신격의 점진적인 쇠퇴현상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관념은 소설작품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연신격을 숭앙하던 사유방식이 점차 인간의 힘 또는 불교와 같은 외래신격에 대한 숭앙으로 대체되는 현상은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사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용신에 관한 관념은 상당히 후대에 형성된 것이고, 용과 관련한 여러 서사물 역시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기우담 유형의 민담들은 근대로의 이행기 관념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서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가뭄, 기우, 용신, 자연신격, 외래신격

1. 서론

인간은 물을 떠나 살 수 없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 자체가 물에서 출발한 존재이기에, 물은 인류의 시원이기도 하다. 인간이 흙에서 비롯했다는 신화적 해석 역시도 물을 필수요소로 하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흙을 ‘빛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흙을 단순한 토양이 아닌 창조를 위한 질

료가 되게 하는 것은 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창조론의 입장이건, 진화론의 입장이건 막론하고 물은 인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최초의 주거지가 되는 곳도 물속이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몸 안에서 끊임없이 물이 운행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멈추는 순간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인간은 신체에서 필요로 하는 물이 2% 부족한 순간 갈증을 느낀다고 한다. 아주 조금만 부족해도 견딜 수 없는 것이 물이다. 인간의 삶은 물 자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정착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농경의 시작에서 비롯한다. 이 농경은 적절한 물의 공급을 전제로 하여 이뤄진다. 고대 중국의 제왕들이 치수에 전력을 기울이고, 국가의 운명을 걸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중세는 물론이고,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가측한 현상들의 증가로 그 해결은 요순시기보다 더 어려워졌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홍수에 관한 구전물은 신화자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찾을 수 있으나 민담자료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반대로 가뭄에 관한 자료는 몽골의 <북두칠성 유래> 외에는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자료 분포상의 차이도 중요한 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뭄에 관한 민담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물이 너무 많은 홍수도 문제지만, 그 반대로 가뭄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기에 더욱 커다란 문제이다. 특히 농경사회에서 가뭄은 가장 큰 재앙이었다.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부단히 노력해 왔다. 과학을 동원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으로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가뭄에 대처해 왔다. 이야기를 통해 가뭄에 대처하는 지식을 전달하고, 삶의 희망을 전하고자 한 것이다. 기후 관련 이야기의 일차적인 존재의의는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기우와 관련한 이야기¹⁾가 구비문학대계에 29편이 조사되어 있다. 이 중 17편은 속신에 관한 것이고, 2편이 역사적인 사실의 구연이다. 용의 승천에 관한 각편이 두 편이고, 도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한 편 있다. 용자 퇴치 이야기가 두 편이 있는 반면에 용자 구원 이야기는 네 편이 전하고 있다. 이 외에 용자교화와 관련한 각편이 한 편 있다. 전체적으로 속신에 관한 것이 17편으로 가장 많고, 용자와 관련된 자료가 7편이었다. 역사, 득룡과 관련한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분포로 보면 속신과 용자관련담을 축으로 하여 기우담이 형성되어 있으며, 역사담, 득룡담이 기우담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우담은 전체적으로 '1. 가뭄의 원인 - 2. 가뭄 - 3. 해결책의 제시 - 4. 해결'의 서사 진행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1-4까지의 과정이 모두 나오는 것이 임금과 가뭄 이야기이고, 3.이 강조된 것이 속신담이다. 3.과 4.가 강조되는 것은 용신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 갈래 속에 민중들이 믿고 있는 신앙체계가 반영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이야기를 하위 분류하여 각각에 내재해 있는 관념체계와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였는가를 알아보는데 본고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2. 임금과 가뭄

기우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이 민간전승되는 사례이다. 대계 1-6 안성군

1) 기우와 관련된 이야기를 기우담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비를 기원하는 이야기'와 '그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聽驟雨藥商得子'와 같이 비가 만남의 매개물이 되는 이야기 등은 본고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비가 갖고 있는 문학적 장치로서의 기능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죽면 37 <철종과 기우제>와 대계 7-3 월성군 안강읍 60 <구년 홍수 팔년 대한(大旱)> 각편이 이에 해당한다. 전자는 철종 때의 사적²⁾을, 후자는 중국 탕왕의 고사³⁾를 구연하고 있다. 그런데 철종의 사적은 픽션화하고 있는데 반해 탕왕의 고사는 『十八史略』 등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구연하는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철종에 관한 이야기는 구전으로 민간에 전해진 반면, 탕왕의 고사는 문헌을 통해 민간에 전해졌다는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철종의 이야기는 ‘사실→기타요소의 첨가→각편 형성→전승’의 과정을 거쳐서 이뤄진 것이라면, 탕왕의 고사는 ‘사실→장면화→기록→전승’의 과정을 거쳐서 이뤄진 것이라 하겠다.

2) 철종 4년 7월 8일(신해)일에 하교하기를,

“돌아보건대, 내가 부덕(否德)한 몸으로 외람되게 왕업을 이어받아,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편안하게 지낼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이 심한 한재(旱災)는 어찌하여 이에 이르렀는가? 규벽(圭璧)³⁶⁴을 여러 번 올렸는데도 신령의 응험은 아직도 아득하니, 민정(民情)을 생각하면 어찌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겠는가? 재앙은 헛되어 생기지 않으니, 반드시 그 연유가 있을 것이다. 민생이 곤체(困瘁)하여도 구제(救濟)하지 못하고, 법령(法令)이 막혔어도 쇠신하지 못하고, 재곡(財穀)이 탕갈되었는데도 절약(節約)하지 못하고, 탐묵(貪墨)이 횡행(橫行)하여도 정치(懲治)하지 못하니, 첫째도 과매(寡昧)한 나의 죄요, 둘째도 과매한 나의 죄이다. 이제부터 3일을 한정하여 피전(避殿)하고 감선(減膳)하고 철악(撤樂)하여 감히 자책(自責)하는 의(義)를 나타내는 바이다.” 하였다.

教曰: “顧予否德, 叨承丕基, 蚤夜憂懼, 莫敢違寧, 今此亢旱之災, 奚爲而然也? 圭璧屢舉, 靈應尙邈, 言念民情, 曷以爲心? 災不虛生, 必有所以民, 生困瘁, 不能救濟, 法令壅遏, 不能振刷, 財穀罄竭, 不能節約, 貪墨橫行, 不能懲治, 一則寡昧之罪也, 二則寡昧之罪也。自今限三日避正殿、減膳、撤樂, 敢寓自責之義。”

【원전】 48집 582면.

3) 은 나라에 7년간 큰 가뭄이 들었다. 나라의 법규 기록을 맡은 관리인 태사(太史)가 탕왕에게 하늘에 인신공희(人身供犧)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탕왕은,

“하늘에 빌려는 대상이 백성인데 어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내가 희생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스스로 목욕재계한 뒤 흰 띠를 몸에 두르고 상림(桑林)의 들에 나아가 하늘에 여섯 가지 이유의 자책을 하며 기도하였다.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큰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十八史略』 券 一)

철종이 조선조의 왕들 중 불행했던 임금 중 하나로 평가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철종은 강화에서 농사를 짓던 소년에서 하루아침에 제왕이 되었으나 세도정치에 휘둘려 왕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3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한다. 이러한 철종은 단종과 함께 민중들에 의해 새로운 인물로 재탄생하게 된다. 임경업, 최영 등이 그러했던 것처럼 민중들의 이상을 체현하는 인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⁴⁾ 역대 왕들은 거의 매년 기우제를 지냈다. 그런데도 기우제 이야기에는 철종만 등장하고 있다. 이는 민중들이 철종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철종이 지낸 기우제는 다른 왕들이 지낸 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했다. 철종의 기우제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민중들만큼이나 간절하게 기우제를 지낼 왕이 필요했고, 그 왕으로 철종이 선택된 것이다.

철종 재위 중 가뭄은 여러 번 있었으나 철종 4년(1853)에 있었던 가뭄이 가장 심했다. 기록에 의하면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 오지 않아 여섯 차례나 올렸다고 한다.⁵⁾ 세 번째 기우제에도 비가 내리지 않자 철종은 자신의 부덕함을 닷하며 3일 동안 避殿하고 減膳하고 撤樂했다고 한다. 이러한 철종의 행적이 비를 가져오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는 철종의 부덕함에 가뭄의 원인을 둔 것으로, 천제의 대리자인 왕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4) 물론, 이들 인물과 철종은 차원이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즉, 단종, 임경업, 최영 등이 무속의 신으로서 추앙되는데 비해 철종은 신격화되지 않는다. 이는 시기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철종이 19세기 인물이었기에 무속의 신으로 신격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도 신격화하지 않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즉, ‘억울한 죽음’을 겪지 않았음으로서 무속의 신이 되기에는 약한 존재였다고 생각한다.

5) 『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철종 4년에는 7월 2일(을사), 7월 5일(무신), 7월 8일(신해), 7월 11일(갑인), 7월 14일(정사), 7월 17일(경신) 등 사흘 간격으로 여섯 번 기우제를 지냈다.

하였고, 그 결과 천제가 내리는 징벌이 가뭄이라는 관념의 소산이다. 왕의 근신은 이러한 천제의 노여움을 풀 수 없었으므로, 가뭄이 이어지는 상황은 왕의 부덕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왕이 부덕하다는 것은 국가 전체의 안위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것이 설령 사실이더라도 민중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곧 이 세상에서 삶의 근거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모든 자연현상을 비롯한 인간 생존의 조건들이 '하늘'에 의해 형성, 유지, 운영된다는 관념이 지배하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철종과 기우제> 이야기이다. 왕의 부덕을 증명하는 현실과 그것을 부정하고픈 욕망 사이의 갈등이 충돌하며 그 모순을 이야기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사용된 삽화가 탕왕 이야기에서 차용 또는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철종이 자신의 죄목 네 가지를 대며 재앙의 연유를 자신으로 돌린 것은 탕왕 고사에도 등장하는 일이다. 또한 탕왕이 지낸 제시는 기우제의 고행이며 동시에 탕왕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사례로 동원된다.⁶⁾ 따라서 문학적으로 '왕의 부덕-하늘의 징벌-가뭄'을 '왕의 유덕-하늘의 용서-해갈'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철종의 기우제에 탕왕의 기우제가 겹쳐지며 <철종과 기우제>가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구년 홍수 팔년 대한(大旱)> 각편은 중국의 기록을 그대로 구연한 자료이다. 이야기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1. 요임금과 순임금 때 구년 홍수가 났다.
2. 탕왕 때 팔년 대한이 들었다.
3. 임금이 도인에게 물으니 만 백성이 단발과 단조를 하라고 한다.

6) 『淮南子』에서는 하늘까지도 감동시킨 왕으로, 『呂氏春秋』에는 민심을 얻은 왕으로 서술되어 있다.

4. 탕왕이 만 백성을 자신이 책임지니 혼자하면 된다고 한다.
5. 그렇게 하자 과연 비가 내렸다.
6. 이때부터 기우제가 생겼다.

탕왕의 기우제는 『十八史略』, 『淮南子』⁷⁾, 『呂氏春秋』⁸⁾ 등의 기록과 『中國神話傳說』⁹⁾을 비롯한 여러 작품집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기록에 수록된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中國神話傳說』의 것이 가장 자세하다. 즉 다른 기록에서는 기우제를 지내는 구체적인 장면이 등장하지 않으나, 『中國神話傳說』에는 기우제를 지내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¹⁰⁾ 이는 물론 기록물의 성격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장면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탕왕이 지낸 기우제는 燔祭 형식이다. 번제는 중국 초기시기부터 시행되었으며, 특히 殷(商)나라에서는 천신 뿐 아니라 조상 신에게도 번제를 드릴 정도로 성행한 제사방법이다.¹¹⁾ 고대 기우제의 일반적 형식이 旱魃을 擬似한 巫師를 燔祭에 쫓아내거나 불에 태우는 희생

7) 湯之時 七年旱 以身禱於桑林之際 而四海之雲湊 千里之雨至 抱質效誠 感動天地(淮南子 主術訓)

8) 昔者 湯克夏而正天下 天大旱 五年不收 湯乃以身禱於桑林曰 余一人有罪 無及萬夫 萬夫有罪 在余一人 無以一人之不敏 使上帝鬼神傷民之命 於是翦其髮 磨其手 以身爲犧牲 用祈福於上帝 民乃甚說 雨乃大至 則湯達乎鬼神之化 人事之傳也.(『呂氏春秋』, 上, 정영호 譯, 자유문고, 2006, 261쪽.)

9) 袁珂, 전인초·김선자 譯, 『中國神話傳說』, 민음사, 2002, 653-655쪽.

10) 탕왕이 기우제를 지내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1. 기우제날 수레를 타고 상림으로 간다.
2. 巫師들이 축원문을 낭송하며 뒤따른다.
3. 탕왕이 자작더미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한다.
4. 제사장이 탕왕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태운다.
5. 자작더미에 올라 불을 붙인다.
6.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길이 탕왕을 감싼다.
7. 그때,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11) 류성민, 『성스러움과 폭력』, 살림, 2003, 15쪽.

제의였으므로¹²⁾ 탕왕이 자신을 바치겠다고 한 것은 전통의례를 시행한 것이라고도 보인다. 이 장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1. 은나라에 7년 동안 가뭄이 든다.
2. 인신을 바쳐야 한다는 점괘가 나온다.
3. 탕왕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한다.
4. 탕왕이 상림에 나아가 기도를 드렸다.
5. 비가 내렸다.

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구년 홍수 팔년 대한(大旱)> 각편은 『심팔사략』, 『회남자』, 『여씨춘추』의 내용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연자 이석봉이 기록물의 내용에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구연자가 중국의 기록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떠한 방법으로건 정보를 습득했고, 그것을 옳다고 여겨 구연하고 있다. 이처럼 기록물에서 시작하는 구전 작품은 그 내용이 변화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이 각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³⁾

이상 두 편의 설화는 모두 임금에게 가뭄의 원인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가뭄의 해결자도 임금이다. 탕왕과 철종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시대적 차이와 성격적 차이를 갖는 인물이다. 더욱이 이들은 탕왕은 신화적인데 반해 철종은 역사적이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이야기는 일정정도 친연성을 보여준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를 유지

12) 袁珂, 위의 책, 439쪽 각주 9.

13)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史籍이 국내에서 구전되는 양상의 문제는 기록과 구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남겨 두기로 한다.

시키는 존재가 왕이라는 인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두 임금의 역사적 차이를 넘어서서 동일한 범주에서 형상화되고 있다. 가뭄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역사적으로 철종은 근신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에 비해 탕왕은 자신의 몸을 바쳤다. 기우제를 지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걸맞는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된 것이다. 어쩌면 민중들이 원하는 것은 근신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몸을 던져 나라 전체의 운명과 함께하는 왕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 왕이 등장한다면 가뭄이 들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을 것이다.

3. 祈雨 原理

이들은 구체적인 서사의 진행은 없이 기우제와 관련된 俗信을 구연한 각편들이다.¹⁴⁾ 기우제와 관련한 각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기우와 관련된 민중들의 관념을 알아보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자료목록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출전	번호	제목	내용	비가오는 이유	기타
1	2-4	양양군 현남면 29	신선바위	바위에서 개를 잡아 피를 흘리게 하고 바다에 던지면 비가 온다.	하느님이 청소하려고	
2	2-4	양양군 현남면 30	비 내려주는 땃돌	땃돌을 바다에 넣었다가 꺼내면 비가 내린다.		
3	2-5	양양군 서면 7	용소의 내력	용소에서 개를 잡아 근처 바위에 개피를 바르면 비가 내린다.		

14) 서사의 기본요건이 문제 상황과 그 상황의 해결 과정이라면 단순히 속신을 구연한 것도 서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번	출전	번호	제목	내용	비가오는 이유	기타
4	6-2	함평군 나산면 15	천주봉과 기우제	가뭄이 들면 올라가 盜 葬한 묘를 파헤치면 비 가 온다.		가뭄의 원인이 명산에 쓴 묘
5	6-2	함평군 월야면 4	기우제	가뭄이 들면 월악산에 쓴 묘를 파내면 비가 내 린다.		가뭄의 원인이 명산에 쓴 묘
6	7-2	월성군 감포읍 4	수제동의 기우제	대왕암 앞바다에서 돼지 머리를 잘라 바다에 넣 으면 비가 온다.		
7	7-4	성주군 성주읍 43	덩테이산의 기우제	덩테이산에서 기우제를 정성스럽게 지내야 한다.		처방 없음
8	7-5	성주군 벽진면 26	용바위 전설	용바위에서 기우제를 지 내면 비가 온다.		처방 없음
9	7-9	안동군 임동면 13	돼지피를 뿌리는 기우제	황산철에 올라 기도를 드 리고 범당을 나가며 돼지 를 잡아 피를 흘린다.	부처님이 청소하는 것이다.	기우제터 가 절
10	7-9	안동군 북후면 8	비가 오는 까닭	용바위에 불을 놓으면 비가 온다.	용이 뜨거워서	
11	7-10	봉화군 춘양면 17	문주산의 용수와 기우제	문주산 용당에서 개를 잡아 피를 용수에 흘리 는 기우제를 지내면 비 가 왔다.		
12	7-10	봉화군 명호면 19	용두산의 영험	가뭄이 들 때 용두산에 불을 놓자 비가 내렸다.		
13	8-1	거제군 장목면 4	백여도의 기우제	백여도의 온 바위에 개 피를 바른다.	청소하기 위해서.	
14	8-7	밀양군 밀양읍 18	시래호박소의 무제	시래호박소에서 돼지를 밀어 넣어 무제를 지낸다.		
15	8-8	밀양군 삼랑진읍 10	시래호박소와 기우 풍속	호박소를 메우면 비가 온다.		
16	8-10	의령군 의령읍 12	자굴산 기우제 터	산을 뒤져 암장을 파내 고 불을 놓는다.		
17	8-13	울산시 50	무룡산의 용과 선녀	무룡산에 암장된 묘를 찾아내 파묘(破墓)한다.		

가뭇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축도살(1, 3, 6, 9, 11, 13, 14), 파묘(4, 5, 16, 17), 메우기(15), 방화(10, 12), 기타(2, 7, 8)가 사용된다. 이들 방법에 내재되어 있는 관념과 성격을 살펴보면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계열화할 수 있겠다. 신성과 제의, 정화와 주술이 그것이다.

3.1. 신성과 제의

가축도살과 파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외형적으로 폭력적인 양상을 띠며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폭로의례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폭로는 처벌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이다.¹⁵⁾ 이로써 하늘을 움직여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축도살과 파묘는 처벌을 가져오는 폭로의례라기보다는 정화와 신성제의의 측면이 강하다고 보인다. 즉, 신성한 산에 묘를 쓰는 불경을 저지르고 그 결과 가뭇이 든다. 이때 죄를 저지른 것은 한 사람이나 그 대가는 집단에게 부과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은 산이 갖고 있던 신성성을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묘를 쓴 개인으로 보면 파묘가 처벌일 수 있으나 집단의 차원에서 본다면 정화의 의미가 된다. 때문에 파묘하는 행위는 일견 죄를 폭로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좀 더 넓은 범주에서는 정화행위라고 하겠다. 즉, 오염의 실체를 제거함으로써 聖山은 신성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성산은 인간들에게 내렸던 징벌인 한재를 그치는 것이다. 이를 여성들이 한다는 점도 시사적이며 그 방법도 상징적이다. 즉, 남성성이 강한 산에 여성이 오른다는 행위는 상당히 성적인 상상력이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 생산과 관련한 일련의 관념들이 성적인 것과 무관하

15) 최종성, 「왕과 무의 기우의례」, 『역사민속학』 10집, 역사민속학회, 2000, 90-92쪽.

지 않음을 상기할 때 이 역시 같은 범주의 것이라 하겠다. 또한 여성은 고대의례에서부터 신과 인간을 매개시켜주는 사제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고대 사회에서 기우제를 지낼 때 曝巫를 행한 巫師는 여성이었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기우제는 여성이 담당하였으며, 이는 국가 주도의 기우제가 행해질 때도 이어지던 전통이다. 기우제가 남성에 의해 시행된 것은 성리학적 관념이 민중들에게까지 일반화된 조선조 후기 이후가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여성에 의한 기우제는 원초적인 형태라 하겠다.

여성들에 의해 진행되는 파묘의례는 자료 5에 구술되어 있다.

조사자 : 그때 산에 올라갈 때는 대개 여자들이 올라 가지요? 남자들이 안 올라가고.

제보자 : 아녜요. 멧(墓)등을 파러 갈 때는 부인들이 호미를 들고 호미를 들고 가서 막 저 멧을 파내고.

조사자 : 묘를 파내 가지고 거기서 만약 뼈같은 것이 나온다고 하면은?

제보자 : 나오면은...

조사자 : 여자들이 거기다 소변 누고 그리 안해요?

제보자 : 당연히 자기들이 보장을 보장을 딱 개봉고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조사자 : 거기다가 혹시 불같은 것은 피우지 안했습니까?

제보자 : 불 피우죠. 저 불을 피우고 저녁에 또 되실 때 저녁에 되셔요. 불을 피우고 그러고는 인자 제사를 되신단 말씀입니다.¹⁶⁾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뼈가 나왔을 때 그 뼈에 소변을 눈다는 것과, 파묘를 하고 그 곳에 불을 피운다는 것이다. 오줌은 우리 민속에서 액을 막 이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¹⁷⁾ 따라서 암장된 유골에 오줌

16) 『한국구비문학대계』 6-2, 563쪽.

17) 제주도 민속에서 천화일 즉 쥐(子), 말(午), 토끼(卯), 닭(酉) 등의 날에 지붕을 덮으면 화재와 같은 재앙이 닥친다고 한다. 부득이 이 날 지붕을 덮을 때에는 일꾼이 지붕

을 누는 것은 그로인해 발생한 흉조를 오줌과 함께 방사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불을 피우는 것은 정화를 의미한다. 이는 곳을 행하기 전 곳당을 정화하기 위한 燒紙와 같은 행위인 것이다. 우리 문화에서 불은 조왕신이 담당하고 있다. 조왕신은 부정을 정화하는 영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에 사람들은 먼 여행에서 돌아오거나 초상집에 다녀오는 경우에는 부엌에 먼저 들러 汚穢와 부정을 정화하였다.¹⁸⁾ 이처럼 불은 태워버린다는 성질로 인하여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없애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암장된 묘를 파묘하고 그 자리에 불을 피우는 것 역시 암장으로 오염된 성산의 한 부분을 태워서 정화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파묘의례는 암장으로 야기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성산에 끼어든 액을 없애고, 그 터를 정화하여 신성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구연자들은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하나의 서사형태로 구연함으로써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주변 바위에 개 또는 돼지의 피를 바르고 소(沼)에 개(돼지)의 신체를 던져 넣는 행위가 비를 가져온다는 믿음도 있다. 이에 대해 구연자들은 자료 1, 9, 13에 보이는 바와 같이 ‘오염-청소’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표면적인 해석이라 하겠다. 피를 바르고, 신체를 던져 넣는 것을 불경한 일 또는 오염시키는 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고대의 희생제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즉,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제단에 바르는 일은 전세계 희생제의에서 공통적인 방식이다. 기우제를 드리는 소(沼)와 그 주변의 바위는 신격과 제단의 擬似體라 하겠다. 가뭄이 들면 소(沼)에 가서 개(돼지)를 잡아 그 피를 뿌리고 신체를 던져 넣는 것은 소

에 오줌을 싸면 액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흉조가 오줌과 함께 放邪되어 탈이 없어진다는 것이다.(편찬위원회 편, 『한국문화상징사전』 2, 동아출판사, 1995, 534쪽.)

18) 편찬위원회 편, 『한국문화상징사전』 1, 동아출판사, 1992, 372쪽.

(沼)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연신격에게 제물을 바쳐 자신들의 기원을 전달하는 행위라 하겠다. 자료 9에서 부정하게 기우제를 지내면 돼지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다시 떠오르는 것은 소(沼)에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연신격이 제물을 거절하는 것이라 하겠다. 가축도살이 단순히 잔학한 살해와 오염이 아닌 신성한 제의임을 이 자료에서 단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축도살은 희생을 통해 사회적으로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고대 희생제 의의 원리가 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사회적 위기 상황의 도래-폭력적 상황의 초래-희생제 의의 거행-사회적 위기의 해소¹⁹⁾라는 희생제가 행해지는 일련의 사회적 맥락이 기우담, 특히 가축도살 기우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희생제의	기우담
사회적 위기의 발생	가뭄이 든다
폭력적 상황의 초래	가뭄이 유달리 심해 농사가 망할 위기다
희생제의 의 거행	개(돼지)를 잡아 피를 뿌린다
사회적 위기의 해소	비가 내린다

위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축도살 기우제를 구연한 자료의 내용을 희생제의 맥락과 비교하면 양자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3.2. 정확와 주술

방화와 메우기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메우기나 방화는 한 번 실패하면 영원히 그祭場이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

19) 류성민, 『성스러움과 폭력』, 살림, 43쪽.

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절박한 상황에서 채택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즉, 한재가 유달리 심하거나, 기우제를 올려도 응함이 없을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일정부분 인간적인 합리성과 초자연적인 합리성이 공존하고 있는데, 공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연신격의 방어행위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큰물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듦으로써 자연신격이 인간들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비를 내릴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즉, 앞의 두 방법이 직접 비를 요구했다면, 이 방법은 상황만 조성하여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이다. 소(沼)를 메우는 것과 산에 불을 놓는 것이 그 방법이다.

소(沼)를 메우는 것은 가축도살과 과묘에서 보여지는 자연신격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는 다른 관념이다. 이것은 오염을 시켜 비를 내리게 조장하는 방법이다. 기우제를 지내는 소(沼)는 일반적으로 신격이 주재하고 있는 신성한 곳이다. 따라서 이곳은 인성(人性)으로 오염되지 않은 정결한 장소이다. 이곳에 돌을 던져 메우는 행위는 신성공간이 인성에 의해 오염되는 것이다. 신성공간을 침입하였기에 최초의 침입자에게 신의 징벌이 내려짐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 징벌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것이다. 죽음을 결심하고 행하는 의례이기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曝巫 전통이 남겨놓은 인신공희의 흔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즉 오염을 위해서는 최초의 행위자 즉, 희생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희생자를 바쳤을 때 인간들은 신성한 터를 오염시키는 의례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더러움을 씻기 위해 신은 비를 내리는 것이다. 이때 내리는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닌 신성한 물, 즉 성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물이 갖고 있는 정화의 기능을 이용하여 해갈을 도모하는 것이다.

방화는 이보다는 더 주술의 원리에 충실하다. 여기서 작용하는 관념은 표면적으로는 지극히 단순하다. 즉, ‘뜨겁다-식혀야한다-물을 뿌린다’라는

연쇄적인 논리가 만들어 낸 방법이다. 따라서 누구도 이 행위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며, 신격도 징벌을 내리지 않는다. 이처럼 일견 단순한 이 행위는 한편으론 상징적인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즉, 불타는 바위(산)은 가뭄이 든 대지를, 여기에 물을 부어 불을 끄는 것은 가뭄을 해결시킬 비가 내리는 것을 대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화를 하는 기우제는 일종의 모사행위라고 하겠다. 불타는 바위에 비가 내려 식혀지는 것이 곧 한발로 타들어가는 대지에 비가 내려 해갈이 이뤄지는 모방주술적 관념이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

4. 龍神觀

4.1. 자연신격에의 복종 - 龍 得天

기우제를 지내는 대상으로 일반적인 자연신격을 상징하는 경우와 특정한 신격에게 드리는 두 가지가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용신일 것이다. 용신에 대한 관념은 3.에서 검토한 기우원리보다 근원적인 인식체계가 작용하는 부분이다. 즉, 기우원리가 특정하지 않은 신격에 대한 기원이라면, 용신관은 ‘용’이라는 비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신격에 대한 인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힘으로 특정할 수 없는 신성성을 갖고 있는 신격-흔히 옥황상제로 표현되는-보다 하위의 신격이면서 인간보다는 상위에 있는 것이 용신이다. 따라서 용신의 권위는 상위 신격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념이 반영된 서사물이 이 장에서 다룰 각편들이다.

용은 비를 관장하는 신격으로 농업사회에서는 절대성을 갖는 신격이다. 용이 왕권을 상징하게 된 것도 비와의 관련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

다. 비는 농사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비의 多寡가 농사의 흥풍을 결정한다. 이는 곧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의 생존과 관련하는 문제가 되므로 가장 존귀한 존재에게 용의 형상과 성격이 부여됨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따라서 용은 민중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상권력 즉 자연신격의 대표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용은 선천적으로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수도를 해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될 수 있는 존재이다. 우리 민담에는 용이 되기 위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용이 되려다 실패한 이야기이다. 흔히 용이 승천하려 할 때 여성 또는 아이가 ‘용이 올라간다’고 말을 해서 승천에 실패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자연신격의 쇠퇴가 낳은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 외에도 邪神退治와 관련된 一群의 이야기들이 모두 같은 관념의 소산이라 하겠다. 그런데 가뭄과 관련한 이야기에서는 용이 득천에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용의 득천담은 자연신격의 권력을 민중들이 지지하는 관념의 소산이라고 하겠다. 이에 해당하는 자료는 다음 두 편이 있다.

1. 대계 2-4 속초시 10 비룡폭포에 얽힌 전설
2. 대계 7-2 월성군 외동면 74. 유그미 들과 용의 득천

두 자료에서 용이 득천하게 되는 원인은 각각 제물과 축언이다. 즉, 자료 1.에서는 용이 아홉 명의 처녀를 제물로 받아 승천할 수 있었고, 자료 2.에서는 아이가 ‘용 봐래이 용봐래이!’라고 하자 득천한다. 자료 1.은 인신공회를 받고 그 결과 용이 되어 승천한다는 것이 특징적인 자료이다. 이는 邪神退治 전설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이다. 인신공회를 받는 사신을 퇴치하는 이야기로는 제주도 <금녕사굴> 전설²⁰⁾이 있다.

20)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1. 제주목사 서린이 순행 중 蛇神송배와 인신공희에 대해 듣는다.
2. 현장에서 蛇神을 불러내어 칼로 벤 후 태워버린다.
3. 뱀의 원혼이 연기로 변해 서린을 죽게한다.
4. 인신공희가 없어졌다.²¹⁾

<금녕사굴>에서는 서린과 지역민 사이에 상이한 관념이 충돌한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와 뱀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지역민의 관념과 그것은 살인이며 단순한 짐승에 불과하다고 보는 서린의 관념이 그것이다. 그런데 두 관념의 충돌이 대등하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서린은 지역민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즉, 왕의 대리인으로서 지역에 내려온 서린은 지역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여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서린에게 지역민들은 다스림의 대상이며 동시에 교화의 대상인 것이다. 서린이 증명하고자 한 것도 일차적으로는 인신공희와 사신이 살인과 짐승이라는 객관적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는 왕권이라는 인간권력이 사신이라는 자연권력과 맞서 그 우위를 증명하는 일이다. 그런데 지역민들에게는 이들 모두가 두려움의 대상이다. 현실적 권력과 초자연적 권력 사이에 끼인 것이다. 지역민들은 이들 중 어떤 편도 들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일방적 승리가 아닌 양쪽의 죽음으로 귀결된 것은 이야기의 향유자들이 양쪽의 권력을 모두 긍정적인 결과로 보인다.²²⁾

이에 반해 <비룡폭포에 얽힌 전설>에서 자연신의 권력은 절대적이다. 가뭄이 들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해결방법이 처녀제사임을 알고는 마을사람들이 모두 합심하여 처녀제사를 지낸다. 이는 매년 같은 시기에

21) 이 서사단락을 강진욱, 설화의 문제해결방식을 통해 본 ‘인식’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3집, 1996.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22)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다. 그러나 권력을 행사하여 위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행해져서 의례화하게 된다. 그리고 그 처녀제사를 더이상 지낼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는 것으로 상황을 해결한다. 누구도 그 괴물을 처단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결국 마을은 폐촌이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주하여 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한다. 2차 거주자들 역시 처녀제사를 지낼 뿐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다.²³⁾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수만큼의 처녀제사를 받은 괴물은 용이 되어 승천한다.

처녀를 바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의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것이 살인이라는 관념이 아니라 가뭄을 극복하여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신성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기우제의는 고대사회에서 행한 희생제의의 흔적이라고 하겠다. 고대 사회에서는 막연한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면, 그 대상이 괴물(용)로 구체적인 대상으로 변한 것이 차이가 날 뿐, 희생을 바쳐 집단 전체의 안위를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曝巫 또는 燔巫와 같은 제의라 하겠다. 이야기에 이러한 제의가 살아있는 것은 가뭄이라는 극한 상황을 맞아 우리 무의식 속에 내재해 있던 기억이 재생된 결과라 생각한다. 상황의 심각도에 비례하여 그 해결방법이 동원되므로, 가뭄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 고대 사회의 흔적이 표면으로 부상한 것이라고 본다.

자료 2.는 1.과는 다른 관념이 작용하여 용이 승천하고 있다. 즉, 말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다. 용이 수련을 마치고도 승천하지 못한 것은 사람들

23) 그레 농사를 잘 짓는데 한 해는 또 가뭄이 와요 가뭄(가뭄)이 와 가지고 이제 큰일났다고 말이야 굶어 죽겠다고 이려고 있는 찰나인데,
“에라 거 뭐 그전에 처녀 고사를 지내면 여기 뭐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에구 그 딸 갖다가 처녀 고사를 지내.”
그레 그 딸을 갖다가 처녀 고사를 딸하고 합의 되어 가지고 아주 어여쁜 딸을 갖다가 목욕을 시켜 가지고 처녀 고사를 지냈더니 (중략) 별안간 그냥 소나기가 쏟아내려 가지고 그냥 개울물이 부듯하게 내려 가거든.(대계 2-4, 61쪽.)

이 승천하는 용을 보고 ‘구리 뱀래이 구리 뱀래이!’라고 소리쳐서 실패하였다. 아무리 용이어도 사람들이 구렁이라고 이름부르면 그대로 구렁이가 되는 것이다. 이에는 말이 사물의 존재를 규정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믿음이 반영된 것이다. 이때 용과 구렁이를 결정지어 주는 것은 인간의 말이다. 자연권력이 인간의 힘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용이 승천하지 못하면 강철이가 되어 가뭄을 가져오지만, 스스로 승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이 도움을 주어야만 용으로서 완전한 변신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용은 신성함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탈색된 존재이다.²⁴⁾

4.2. 자연신격의 쇠퇴

4.2.1. 龍子 懲治

앞 절에서 살펴본 두 편을 포함하여 모두 다섯 편의 이야기에서 용은 특정한 존재가 아닌 용왕의 아들 또는 용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용은 민중들이 용을 승천하여 천상으로 오르는 용(天龍)과 바다에 주재하는 용(水龍)으로 구분하여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가뭄과 관련된 다섯 편의 이야기에서는 천룡이 아닌 수룡이 등장한다. 천룡과 달리 수룡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댓가로 징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다음 세 편이 그것이다.

1. 대계 3-2 청원군 옥산면 3. 가뭄에 비 내리고 천벌받은 용왕아들
2. 대계 7-8 상주군 화서면 34 용자와 선관
3. 대계 8-9 김해군 녹산면 15. 우민 선생의 사해용왕 퇴치

24) <작제전> 이야기와 같이 인간이 용을 구하는 일군의 이야기들을 救龍談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세 편에 등장하는 인물 중 자료 1.의 선생을 제외하고는 평범한 인간은 아니다. 정침지는 선관으로서 하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우민 선생은 ‘눈을 감으며 천상에 상자(上座)가 되고, 눈을 뜨며 당 태종의 신하가 되’는 인물이다.

세 편에서 龍이 징벌을 받게 되는 원인은 모두 비를 정해진 양과 다르게 인간세계에 내렸다는 것이다. 자료 1.에서는 禁雨令을 어긴 것이고, 자료 2.와 3.은 정해진 양보다 적게 내려 상제의 명령을 어겨 징벌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료 1.의 경우에는 다른 자료와는 다른 용자의 모습이 등장한다. 초립동으로 변신하여 선생에게 학업을 배우던 용자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비를 내리게 한다. 선생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선생은 인간이 쌓아 놓은 지식을 후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문자지식으로 대변되는 고도화된 인지능력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에 비해 용자는 자연 권력의 계승자이다. 용왕의 아들로써 비를 다스리는 책무를 맡고 있는 자연신격이다. 이들이 사제관계로 연결된 것이다. 자연신격이 수업을 위해 지상에 올라와 인간의 문자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이미 자연신격이 인간의 질서에 포섭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용자에게 상제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위반 결과가 자신의 죽음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의 부탁²⁵⁾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적 질서와 인간적 질서의 대립에서 인간적 질서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 비해 2.와 3.의 자료는 수직적 군신 질서에서의 순응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인간의 운명과는 별개로 용왕이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가가 갈등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들 서사에서 주요한 기능을 하는 것

25) 이때 부탁은 심정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죄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의 부당함을 설파하는 선생의 이성적인 설득으로 이뤄진다.

이 ‘내기’ 화소이다. 이때 내기는 표면적으로는 인간과 용왕 사이에서 이뤄지며, 그 내용도 용왕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용왕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용왕은 인간(선관)과의 내기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상제의 명령을 위반한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상제의 명령을 위반한데 대한 댓가는 죽음이다. 상제와 용왕은 천자와 제후의 관계와 같은 수직적 질서에 놓여있다. 따라서 그 명령의 절대성은 인간세계의 그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용왕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천자와 제후 또는 왕과 신하의 관계로 치환되면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차원이 된다. 즉, 상하질서의 순종과 그 위반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다. 이때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일 수도 있고 정신적, 사회적인 죽음일 수도 있다. 한 사회에서 한 명의 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없는 것 역시 죽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자료 2.와 3.에는 기존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4.3. 龍子救援

3.2.에서 살핀 자료 1.과 같이 인간적인 질서 때문에 용자가 죽을 위기에 처하는 이야기가 세 편 전하고 있다.

1. 대계 8-7 밀양군 밀양읍 40. 시래호박소의 이무기 전설
2. 대계 8-7 밀양군 상남면 10. 시래호박소의 이무기
3. 대계 8-8 밀양군 산내면 1. 호박소와 대비뭇 이무기

자료 1.은 『三國遺事』 권 4 ‘義解’편에 실려있는 <寶壤梨木>과 동일한 이야기이다.²⁶⁾ 기록물의 내용이 구전의 과정을 거쳐 민중들에게 전해지고

26) 양자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정식(보양이목 설화 연구, 『백록어문』 6, 제주대 국어

있는 것이다.²⁷⁾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寶壤의 행적과 梨木의 행적으로 이뤄져 있으나, 구전되는 자료는 보양의 행적보다는 이목의 행적이 중심이 되고 있다. 즉,

1. 보양이 중국을 다녀오다
2. 도중에 용궁에 초대되어 불법을 전하다
3. 용자를 시봉으로 데려오다
4. 용왕의 말대로 하여 절을 세우다
5. 고려 건국을 도우다
6. 가뭄이 들다
7. 용자가 비를 내리게 하다
8. 神將이 잡으러 오다
9. 보양이 계략으로 이목을 구하다

의 전체 서사진행 중 단락 4.와 단락 5.를 빼고 구연하고 있다. 즉, 보양의 행적은 구전과정에서 생략되고 이목의 행적이 구전된 것이다. 이는 『삼국유사』는 불교를 중심축으로 이뤄진 저작이기에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불가결하지만, 구전은 그러한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므로 취사선택된 내용이 구전된 것이라 하겠다.

구전 자료에서도 용자인 이목은 자신이 비를 내리면 죽임을 당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가뭄에 비 내리고 천벌받은 용왕이들>(대계 3-2 청원군 옥산면 3.)에서와 같이 선생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죄를 범하는

교육과, 1989), 황경숙(이무기 설화와 기우제-밀양 호박소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보』) 등의 선행연구가 있었으므로, 본고에서는 할애하였다.

27) 삼국유사가 기존의 기록 혹은 구전물을 집성한 것으로 본다면 이들은 구전-기록-구전의 과정을 거쳐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불교적인 색채를 제거하면 원형에 가까운 형태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神將이 이목을 잡으러 내려오는 위기 상황이 도래한다. 그리고 이 위기상황을 보양의 계략²⁸⁾으로 모면한다. 자연권력의 소유자인 용자는 佛法에 절대적으로 지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용왕이 보양을 초빙하여 불법을 전해들은 것 자체가 용왕 자신이 불법에 심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불력은 신장(神將)까지도 속일 수 있는 위력을 보여준다. 상제의 명을 받은 신장까지도 도량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불법을 통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관념은 토착 신앙과 습합되어 자리잡은 불교가 민중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인식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즉, 토착신앙에서 기우제의 대상이었던 용은 그 권력을 상실하고 그 자리를 불교에 내어준 것이다. 외래신앙이 토착신앙을 대치하는 현상이 문학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때 보양은 트릭스터의 모습을 갖는다. ‘이목’을 동음이의어가 되도록 조작함으로써 신장을 속여 자신의 企圖를 성공시키고 있다. 보양의 트릭은 이목을 구하는 것이다. 이목을 구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제자를 살리고 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보양은 이목을 구함으로써 이 땅에서 가뭄을 방지하고 있다. 이목이 살아났으므로, 가뭄이 들 때 이목에게 부탁하여 비를 내리면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양은 인간들에게 주어진 커다란 재난인 가뭄을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보양의 트릭은 이기적인 것이 아닌 이타적인 것이고, 이는 문화영웅의 면모이기도 하다. 보양은 佛法을 代喩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구세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로 대표되는 불법이 자연 재앙을 물리치는 異蹟을 행한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관련 서사에서 이적담은 선교 초기에 타종교와의 경쟁에서 행해진다. 이 경쟁은 표면적이고 직접적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간접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보양이목」의 경우에는

28) 절 마당의 배나무를 이목이라고 알려줘서 그것에 벼락이 내리치게 한다.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즉, 이목을 매개로 하여 보양과 상제는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경합에서 보양이 상제를 물리침으로써 이목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는 자연질서를 조절할 수 있는 권력의 획득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양, 즉 불교가 있음으로써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연권력은 그 힘을 상실한다는 믿음은 불교가 민중의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는 신념으로 확대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자료 2.와 3.은 선생과 스님, 학생과 상좌라는 설정을 제외하고는 같은 이야기 진행을 보인다. 애초에 선생(스님)은 학생(상좌)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 학생(상좌)의 수상한 행적을 쫓아서 그가 신적인 존재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가뭄이 들자 비내리기를 청한다. 그리고 학생(상좌)는 간청에 못이겨 비를 내린다. 그리고 학생(상좌)를 죽이기 위해 찾아온 神將을 선생(스님)이 보양과 같은 계략으로 속인다. 이들 이야기에서 자연신격은 그 권력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상 용자 구원에 속하는 세 편의 이야기는 가뭄 이후의 서사전개에서 공통되고 있다. 그리고 자료 2.와 3.은 가뭄 이전-정체노출-삼화가 공통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들 이야기의 본령은 가뭄 이후의 서사전개라 하겠다. 즉,

1. 가뭄이 들었다
2. 용자가 비를 내린다
3. 용자가 죽을 위기에 처한다
4. 계략으로 구한다

의 구조를 보이는 서사가 이들 이야기의 핵을 형성하고 구전 또는 기록되는 과정에서 다른 요소들이 첨가되어 현재와 같은 형태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핵심서사 ————— + 신원 노출 삽화 = 자료 2, 3
 + 고승 행적 삽화 = 자료 1

따라서 핵심서사는 『삼국유사』 편찬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핵심서사와 보양의 이야기가 결합하여 「寶壤梨木」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역의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또다른 救龍談인 '居陀知 설화'²⁹⁾는 당시에 이미 초자연적인 관념들이 외래 사상에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가뭄의 발생과 그 해소의 과정에서 야기된 용자의 위기를 인간이 지략으로 해결한다는 이야기에는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초자연적 권력이 쇠퇴되어 가는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가뭄이라는 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문학적 노력인 기우담에 내포되어 있는 관념들을 살펴보았다. 강우량의 극단적인 다과가 빚은 홍수와 가뭄은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재해 중에서도 그 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일반 민중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재해를 극복하고 현실의 삶을 영위할 힘을 얻기 위한 민중들의 요구가 서사탄생의 동인임은 불문가지한 일이라 하겠다. 홍수와 가뭄을 서사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홍수는 신화의 차원에서, 가뭄은 민담의 차원에서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홍수는 신 혹은 신적인 존재만이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 신들의 역사로 인식한 반면에 가뭄은 인간의 힘으로 이겨

29) 『三國遺事』 권2 紀異 제2 眞聖女王 居陀知」條

낼 수 있는 것으로 여긴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살핀 기우담은 이러한 인식의 연장에서 세 가지 방향으로 갈래지을 수 있었다. 가뭄의 원인, 대책과 龍神觀이 그것이다. 민담에서 가뭄의 원인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원인을 임금의 부덕에 귀속시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철종이었다. 민중들은 자신들과 같은 처지였던 철종에게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위정자의 모습을 투영시켜 이야기를 형성한 것이다.

또한 민중들이 가뭄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하나는 신성한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상의 훼손된 신성함을 복원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성한 존재 스스로가 자신의 신성함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제물을 바치거나, 오염된 성역을 정화함으로써 이뤄지고, 후자는 신성공간을 훼손함으로써 이뤄진다. 방향은 다르나 양자는 모두 신성한 존재에게 인간의 현실적 고난을 해결해 주길 청원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은 신성한 자연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라 하겠다.

이와 반대되는 인식의 방향이 용신에 대한 관념이다. 용신에 대한 관념은 용이 처녀제물을 받고 승천하는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인간에게 제압당하는 용의 형상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용은 인간에 의해 제압당하거나 속임수에 넘어가는 존재가 되고 있다. 나아가 용자가 자신의 운명을 인간에게 의탁하는 형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자연신격의 점진적인 쇠퇴현상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관념은 소설작품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연신격을 숭앙하던 사유방식이 점차 인간의 힘 또는 불교와 같은 외래신격에 대한 숭앙으로 대치되는 현상은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사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용신

에 관한 관념은 상당히 후대에 형성된 것이고, 용과 관련한 여러 서사물 역시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기우담 유형의 민담들은 근대로의 이행기 관념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서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정식, 「보양이목 설화 연구」, 『백록어문』 6, 제주대 국어교육과, 1989, 81-103.
강진옥, 「설화의 문제해결방식을 통해 본 '인식'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3집, 1996, 265-298.
류성민, 『성스러움과 폭력』, 살림, 2003.
袁珂, 전인초·김선자 譯, 『中國神話傳說』, 민음사, 2002.
최중성, 「왕과 무의 기우의례」, 『역사민속학』 10집, 역사민속학회, 2000, 87-112.
편찬위원회 편, 『한국문화상징사전』 1, 동아출판사, 1992.
편찬위원회 편, 『한국문화상징사전』 2, 동아출판사, 1995.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황경숙, 「이무기 설화와 기우제-밀양 호박소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보』, 1994, 177-208.
『三國遺事』
『十八史略』
『呂氏春秋』
『조선왕조실록』
『한국구비문학대계』
『淮南子』

ABSTRACT

Analysis of the Concept and Meaning in Sub-types of the Tale of a
Traditional Korean Rite to Pray for Rain

Noh, Young-Keun

Flood and drought are the most common natural disaster. It happens often and affects our lives directly. Especially to the farmers in old times, these natural disasters are crucial for their farming and living. It is an easy and natural guess that people make narratives representing their wishes to overcome the natural disaster. It is interesting that flood was accepted in myth and drought was accepted in folktale when they use narratives to overcome the natural disasters. This is because people believed flood can only be controlled by god but drought can be controlled by humans.

The tale of a traditional Korean Rite to pray for rain composed of three parts: the cause of drought, a countermeasure against drought and the concept of Dragon. It is not clearly shown the cause of drought in most of the folktales. Only a few folktales are telling the cause of drought. In these folktales, they say the cause of drought is because their King has no virtue and the King is Chol-Jong. People project themselves to a shape of governor who was struggled to overcome the disasters, and the governor is Chol-Jong.

The way of overcome the drought are in two ways. One way is restoring the damaged divinity of something that had divinity once. The other way is make a setting the divined nature keep their divinity by themselves. For this the former way can achieved offering a sacrifice of cleaning up the holy place. The second way is make dirty the divined nature. The way seems different but both ways are same in the aspect that they are asking a help to divined nature. It can be understood people in old days had

positive recognition to the holy natural power.

The way of recognition to the dragon is opposite to the recognition to the holy nature. The concept of dragon shown in the folktales are in the shapes of dragon which defeated by humans. In many tales, dragon was defeated or tricked by humans. Moreover, the son of dragon depends on his fate to the humans. It can be understood the power of the natural divinity became decline gradually. These kinds of concept and recognition can be found in the novels.

The way of relying to Shamanistic natures was changing to human's ability or foreign divine such as Buddhism. This kind of change happened along with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from middle age to modern age. If it is true, the concept of dragon formatted in the latter time of middle age and the tales related to this concept formatted in the same period. So the tale of a traditional Korean rite to pray for rain which solves the problems in everyday life with narrative form is based on the concept formatted in transition from middle age to modern.

Key Words drought, pray for rain, dragon, foreign divine, natural divine

논문투고일 : 2007. 3. 30
심사완료일 : 2007. 4. 20
게재확정일 : 2007. 5. 4